데스크 시각

받아놓고도 쓰지 못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김대성
제2사회부장

정부가 전남 지자체들에 내린 1045억 원의 지방소멸기금이 지자체의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것도 못쓰는 게 아니라 안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최근 지난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할애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상당량이 금고에 사장된 처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못쓰나 안쓰나'의 논란이 일고 있다. 골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배정받은 기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유독 소멸위험지수 전국 1위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전남 지자체 1000억 넘게 '낮잠'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 지자체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배정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사라질 위기를 맞은 지역을 선정,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지역 지자체에 배분된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 기금액은 총 1256억 원에 달했다. 기금을 배정받은 지역은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16개 군지역이다. 배정액은 신안군 120억 원을 비롯해 곡성·보성 96억 원, 구례·고흥·장흥·영광·완도 80억 원, 해남·영암·함평·장성 72억 원, 담양·화순·강진·진도 각 64억 원 등이었다. 올해도 확보한 총 1600억 원 중 광역자치단체로는 304억 원, 기초자치단체로는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배정받은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회의원이 파악한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따르면 장흥군은 80억 원의 기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군은 이미 받은 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80억 원의 소멸기금을 교부받았는 데 그마저도 집행률은 34.6%에 그쳤다.

구례와 고흥도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교부받은 예산 80억 원, 64억 원을 쓰지 않았다. 이 밖에 나머지 시·군들의 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평균 19.4% 수준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인구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교부돼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저조한 기금 활용의 원인으로 미흡한 사업 계획, 전문인력 부재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용지 매입의 어려움, 까다로운 설계 심사 절차 등을 꼽았다.

이와는 별개로 기금 사용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다. 출생과 양육 지원 등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에 대부분 몰려있어,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보다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문화관광 사업에 기금을 집중 투입하면 방문 인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체류·정주 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사업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순이었다.

제때, 제 곳에 쓰도록 관리해야

이유야 어쨌든 배정받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패널티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조한 기금 집행률은 다음 해에 사업비를 이월해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정부의 실적 평가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금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금 집행률이 50% 미만(2024년 말 기준)인 경우 2024년 기금을 25~50% 삭감하고 2022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2024년 말 기준)일 때는 2025년 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은 물론 기금 사용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사용된 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 유입이나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관광지 조성이나 각종 정비사업, 시설물 건축 등 보여주기 사업에 대부분 투입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는 시·군들이 교부 받은 소멸대응기금이 제때,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금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시급하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존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감한 계획 변경을 강구 해야 한다.

은펜칼럼

고흥 입향조 충강공 송간(宋侃)

송민석
수필가·전 대학 입학사정관

충강공(忠剛公) 송간(松侃·1405~1480) 선생은 고흥 재동서원(齋洞書院)에 배향된 중심인물로 여산 송씨의 중시조이며 고흥 입향조다. 조선 초기 충신으로서 세종, 문종, 단종 등 3대에 걸쳐 관직은 형조참판, 종 2품인 가선대부와 동지중추부사를 지내고 고흥 재동서원에 '단조초혼칠현신(端廟招魂七賢臣)'으로 모시는 할아버지다.

단종 왕비였던 정순왕후(定順王后)는 판돈령부사 송현수의 딸로 여산 송씨 가문이었다. 송간은 단종의 명으로 '팔도진무사(八道鎭撫使)'(민심을 수습하는 일종의 암행어사)로 호남 지역을 순회하던 중 계유정난(1453년)을 맞았다.

12세에 즉위한 단종의 재위 3년 2개월 만에 수양대군이 고명대신 김종서, 황보인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왕위를 장악한 정변이 계유정난이다. 세조의 찬탈 소식에 송간은 즉시 관직을 버리고 몸이 아프다는 구실로 고향인 전라북도 여산(礪山)에 내려와 울적한 나날을 보내며 두문불출하였다. 그 후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자 영월로 달려가 단종을 만나 통곡과 함께 진무 결과를 보고하고 여산으로 돌아왔다.

그 후 단종은 1457년 10월에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승하하였다. 송간은 장례를 치른 영월 호장(戶長) 엄흥도의 도움으로 단종이 평소 입던 곤룡포를 몰래 숨겨 충청남도 계룡산 동학사에 들어가 매월당 김시습 등과 함께 1458년 3월 15일에 위령제를 모시는 등 3년 상을 마쳤다. 그 후 호남 지역 순회 시에 보아 두었던 고흥군 동강면 마륜촌에 내려와 터를 잡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아들 5형제 (맹유, 중유, 계유, 백유, 숙유)도 함께 고흥으로 내려왔다.

고흥 마륜촌 뒷산 대나무 푸른 숲 사이에 서산정(西山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북쪽을 향하여 절을 올리고, 때로는 통곡하는 등 평생을 단종 임금에 대한 충절을 다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실성한 노인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한다. 이분이 바로 560여 년 전 고흥에 처음 터를 잡으신 여산 송씨 19대조 충강공 할아버지다.

송간이 은거했던 서산정은 재동서원이 내려가 보이는 동강면 마륜리 마서마을에 위치해 있다. 송간의 호 서재(西齋)는 바로 마륜리 서쪽 언덕의 집을 가리킨다. 서산정 언덕에서 바라보면 고흥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순조 때 계룡산 동학사를 해체 복원할 때 대들보에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동학사 초혼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세조의 권세에 짓눌려 암울했던 시절 초혼제에 참여했던 신하들 명단을 기록하여 대들보 속에 감추어 둔 것이다. 살벌한 시국에 초혼제에 참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당시 초혼제에 참석했던 '김시습, 조상치, 송간, 조영, 정지산, 이성희, 이축' 7분을 '단묘초혼칠현신(端廟招魂七賢臣)'이라 일컫고, 여기에 엄흥도를 더해 '팔절'이라 숭상하고 있다. 동학사에는 이와 관련 '초혼각', '숙모전'이 있고, 고흥 재동서원에는 '단묘초혼칠현사적비(端廟招魂七賢事蹟碑)'가 건립되어 있다.

조선조 22대 임금인 정조는 송간에게 사육신, 생육신과 다름없는 충신이라 하여 '충강공(忠剛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정조 16년, 1791년)

고흥에 거주하는 충강공 후손들 가운데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이 많다. 선무원종 1등 공신으로 채록된 송대립, 송희립 형제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공신들이 배출되었다.

충강공의 산소는 낙안(벌교읍 원동)의 백이산 영보제(永報齊)에 모셔져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후손들이 모여 지금껏 제사를 모셔 오고 있다. 송간 선생의 행적을 모은 '서재실기(西齋實紀)'는 재동서원 유물관에 보관 중이다. 재동서원의 교지와 교첩 등 고문서 73점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다.

기 고

내 안경의 도수를 올려야겠다

양 홍
목사·시인

악전고투의 젊은 날이 어느덧 다 지나고 산수(傘壽)의 언덕을 넘어선 자신을 발견하고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임을 깨닫는다. 해마다 생일이 오면 아이들과 친구들의 축복과 축하카드를 받고 그 덕택으로 오늘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앞으로 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지고 초조해지기도 한다.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아무 여유도 없이 쩔쩔매며 살아온 지난날들. 부끄럽고 후회스럽기만 하다. 그럴 때 친구들마저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한 친구는 내게 좋은 시(詩)를 손수 붓글씨로 써서 보내주었다. 그 시 끝줄에 '그대는 나이를 햇수로 세지 말고 친구로 세어라'라고 쓰여 있다. 나는 쓸쓸할 때마다 그 시구를 쳐다보며 읽는다. 살아온 생의 조각보가 내 눈 앞을 지나간다.

아침 산책 운동도 열심히 하여 노후 건강관리를 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자. 쫓아다니며 강의도 듣자. 아직 건강하니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나를 젊게 해 준다. 앞으로 남은 나의 날들을 위해 종이 책도 더 읽고 가고 싶은 여행도 더 많이 계획을 세워 보련다. 의무와 책임의 무거운 짐도 이젠 다 벗어버리고 난 지금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련다.

친구의 편지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친구가 있고, 읽어야 할 책이 있는 한 나는 외롭지 않구나'라고 쓰여 있었다. 야! 멋있다. 그렇구 말구.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지! 일 년에 한두 번 서신 왕래가 있을 정도지만 우리는 죽마고우다. 소식이 거의 끊겼다가 한 오년 전 다시 만나 오늘에 이르렀다.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생선회와 홍어를 좋아해서 어쩌다 명절에 고향에서 만나면 함께 즐기며 밤을 새어가며 이야기하곤 한다. 헤어질 때면 우리 살아있으면 또 만나자 하고 담담히 헤어지곤 했다. 멀리 헤어져 있으나 언제나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정겨운 친구다.

정년퇴임을 하고 빛고을 광주로 이사와 살면서 시와 수필을 등단하여 대부분을 글 쓰는 문우들과 사귀고 있다. 그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분들이어서 보내준 카톡의 문자는 시요 문학작품이다. 또 읽거나 직접 출간한 종이책들은 서로 오간다. 책을 꾸려 우체국에 부치러 가는 일, 또 다른 책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 이 기다림이란 짜릿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식 그리고 형제들, 친지들. 과연 몇 번이나 더 만나게 될 것인가.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여러 가지 축원을 담은 정다운 글. 그 말미에 '친구,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리겠네'라고 쓰여 있었다. 아름다운 우정에 감사의 행복을 느꼈다. 나 또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친구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멋있고 복된 네 생의 또 한 해가 되어지이다'하고 머리 숙였다. 나도 더 열심히 친구 친지들을 위해 우정을 다짐하며 축복과 축도를 드리련다.

독서의 계절이 폭염을 밀어내고 드디어 찾아오자마자 광주 출신 한강이 대한민국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 문학 세계화의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전 세계가 한강의 작품집을 구해 읽으려고 앞을 다투고 있단다.

나 또한 멋있고 풍부한 내 삶을 위해 양식이 되는 종이 책을 더 읽으려면 내 안경의 도수를 높여야겠다.

社 說

광주시,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명분 있나

광주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20년 넘게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5500여만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21년간 지원한 예산만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입주해 있는 사무실은 첨단지구 민간 소유 건물로 광주시는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

광주시는 임대료 지원 근거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들고 있지만 광주시가 임대차 계약 주체로 나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민주노총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시 소유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가 임대료 지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남산단에 있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나가지 않으니까 혈세 낭비가 아니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하남산단은 입주기업만 10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광주의 산업 생태계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 광주시가 나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차려주는 것은 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를 통해 개별 사업장별로 막대한 조합비를 징수해 자금력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관행을 이유로 사무실 지원을 계속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겠는가. 명분 없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뜻이기도 하다.

하루 7건꼴 아동학대 선제적 관리로 예방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하루 7건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과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하면 아동학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44명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는 여전히 사회면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4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광주·전남에서 7.5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아동학대는 지난 수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아동학대 양상은 체벌 등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학대로 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지난 2021년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웃들의 개입 및 신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는 아직도 가족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한 탓에 법원의 판결도 다른 폭력에 비해 온정적인 수준이다. 아동학대를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벌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려 아동학대 조짐을 보이는 가족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개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운세

"타로는 현 에너지로 보는 거라서 바뀌기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생각하고 카드 두 장을 뽑아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잘 될 것 같아요. 시작이 됐고 성공한다고 하네요."

최근 방문했던 카페에서 우연히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 타로(Tarot)는 서양에서 오컬트적 상징이나 점술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카드의 일종이다. 질문을 던지고 카드를 뽑으면 리더가 해석해서 답을 알려주는 식이다. 평소 사주나 점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막상 찾아가기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 망설인 적이 많았다. 그러다 아이의 입시가 다가오면서 용기를 내어 사주풀이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타로가 두 번째였다. 신점이나 사주에 대해 반감은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맹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재미삼아' 또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하는 마음이 크다.

연말연시가 되면 자신의 미래가 알고 싶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일간지에 매일 띠별 '오늘의 운세'를 소개하는 것도, 1월1일자 신문에 '올해의 운세'를 소개하는 것도 이같은 관심사를 대변한다.

근래 들어 점집을 찾는 이들의 연령층이 바뀌고 있다. MZ들 사이에 SNS 사주나 타로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다거나 MZ세대가 점술시장을 바꾼다는 뉴스도 간혹 들려온다. 직접 점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이나 사주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고 타로 카페 등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20~30대 젊은이들이 사주풀이는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되는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의 위로차 찾기도 하지만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어 찾는다는 이들도 많다. 재미삼아 MBTI(성격유형검사)를 하듯이 사주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주점과 타로점, 나의 두 번의 점술 모두 같은 결과가 예견됐다. 재미와 위로의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었으니, 그 점술이 진짜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FAX 222-8005〉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